

ALL IN ONE

人

人

人

人

人

9 월
4 주 차



상위인지

“평범의 반복이 비범을 만든다.”

[JUS.T]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대인재 재종

Copyright © 2025. 상위인지. all rights reserved All

DesigNed by JUS.T

2020학년도
기출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며칠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인상적인 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봉산 탈춤'의 양반탈과 달리 눈 아래부터 귀 위까지 이어진 선이 눈꼬리와 겹쳐 미소를 만드는데,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 쑤신다."라는 말에 담긴 허풍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 탈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용이 새겨진 복잡한 모양의 관에 시선이 갔습니다. 양반탈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 관우 탈은 머리에 쓴 관까지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강렬한 붉은 색이어서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모두 이용해 관우의 박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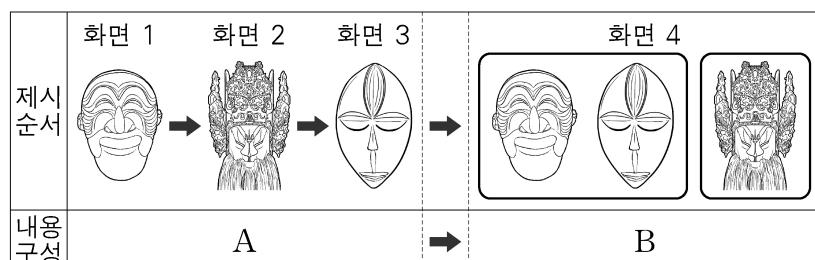
마지막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탈은 과장과 생략이 특징입니다. (화면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이 탈도 추상적으로 보일 만큼 과감한 생략이 인상적인데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되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여 기회가 되면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이란 주제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	B
①	사용된 색채를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형태상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구분하여 제시하기
②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③	인상적이었던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공통점이 드러나도록 순서를 변경하여 제시하기
④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관이 가진 장식성이 대비되도록 제시하기
⑤	표현된 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선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이 드러나도록 제시하기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
- 나도 관우 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에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었어.
-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 ① 발표 내용을 예측하여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다.
- ②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
- ③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듣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하며 듣고 있다.
- ⑤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다.

[4~7] (가)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문이고, (나)는 (가)의 보도 이후에 지역 사회에서 개최된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 한옥의 멋’ 솔빛 마을이 달라진다

솔빛 마을, 시청과 한옥 관광지 조성에 합의

시청 측과 솔빛 마을 주민 측은 △월 △일 시청에서 회동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한옥의 가치 전파를 위한 한옥 관광지 조성 사업을 연내 추진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시청 측은 솔빛 마을의 한옥이 타 지역 한옥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사업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둘레 길 조성, 마을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 측은 사업이 마을 발전과 한옥의 가치 전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옥 관광지로 조성된 인근 ○○ 마을에서 발생한 과잉 관광 현상이 솔빛 마을에서 되풀이되지는 않을지 걱정했다.

지역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래 ○○ 마을의 마을 소득과 관광객 수는 각각 연평균 약 5%, 7%씩 증가했다. ⑦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인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문제에 봉착했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 마을의 토착 거주 인구는 8년 전 대비 12% 감소했다.

주민 측은 ○○ 마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내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나)

시청 측: 지난 협상 후 기사를 통해 여러분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한옥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관광객에게 한옥 내부를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 측: 저희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옥 내부를 개방하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아 삶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⑨ 결국 ○○ 마을처럼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이 떠난 자리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지인들로 채워져, 전통 마을로서의 모습도 퇴색될 것입니다.

시청 측: 이해합니다. 저희도 모든 한옥을 개방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한옥을 개방하되 가능하면 많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개방을 허락하실 경우에도 예약한 관광객에게만 관람을 허용하고, 한옥 관광 도우미가 동행하여 미개방 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 측: 한옥 내부 관람을 않고 골목길 관람만 한다 해도 많은 관광객이 한곳에 몰리면 현재의 마을 여건 상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삶이 침해될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다닐 만큼 길이 넓지도 않고요.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여행 경험의 질이 동시에 악화될 것입니다.

시청 측: 한옥 내부 관람 인원은 매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고, 단체 관광은 마을 관광 에티켓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정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동선이 분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⑩ 이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 측: 그 정도 계획은 마을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 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봅니다. 그러면 한옥 개방 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해 주십시오. ⑪ 또한 한옥 관광 도우미로 지역 어르신들을 우선 채용해 주십시오.

시청 측: 지역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채용 건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방 시간은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야간 개방에 대한 관광객들의 호응이 클 것이므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⑫ 그러면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지 않을까요?

주민 측: 개방 시간을 연장하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상쇄할 만한 대가를 얻는다면 주민들이 연장에 찬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방 시간 연장의 이득은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일부에 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야간 개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시청 측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 측: 그러면 야간은 아니더라도 오후 7시까지 개방은 고려해 주십시오. 그 후는 주민들의 생활을 배려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민 측: 그렇게 하신다면 그 점은 주민들과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대신 관광 산업 발전으로 증대된 세수는 반드시 주민 생활 복지 개선에 사용해 주십시오. ⑬ 노인 회관 시설 개·보수와 주민 문화 시설 마련에 중점적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개방 시간과 관련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음은 기자가 (가)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계획을 메모한 것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기사 내용] 솔빛 마을 한옥 관광지 조성 사업
[조사 방법] 관계자 취재, 관련 기관 문헌 자료 수집

〈시청 측과 주민 측 협상 취재〉

- 사업 추진 목적 및 양측 합의 사항

〈시청 측과의 인터뷰〉

- 사업 경쟁력에 대한 판단.....①
- 사업 추진 계획.....②

〈솔빛 마을 주민 측과의 인터뷰〉

-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및 우려 사항.....③

〈지역 연구소 자료 수집〉

- ○○ 마을 한옥 관광지 사업 관련 통계.....④
- 관광지 운영에 따른 피해 경감 사례.....⑤

5. <보기>는 ㉠의 초안이다. <보기>를 ㉠과 같이 수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의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문제에 봉착했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 마을 토착 거주 인구는 8년 전 대비 12% 감소했다.

- ① 독자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인과 관계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기 위해
- ②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 ③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주제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 ④ 글의 응집성을 고려하여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표지를 수정하기 위해
- ⑤ 글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6. 다음은 솔빛 마을 주민 측에서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협상 계획서의 일부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의할 내용	세부 내용	대응 전략
:	:	:
파인 관광 문제 - 관광 수용력을 중심으로	개인 생활 침해, 공동체 구성원의 이탈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	
	관광객이 기대하는 관광 경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 규모를 넘을 우려.....(㉢)	
지역민을 위한 현안	일자리 창출.....(㉣)	
	생활 복지 개선.....(㉤)	
:	:	:

- ① [A]에서는 ㉠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상대측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과 관련된 상대측 계획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상대측에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 ⑤ [E]에서는 ㉤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내며 상대측의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7. (나)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의할 대상을 제한하여 상대방에게 선택할 것을 권유하는 발화이다.
- ②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③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을 가정하며 그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 ④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 ⑤ 상대방과 공동으로 기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조건을 제시하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발화이다.

[8~10] (가)는 학생의 일기이고, (나)는 (가)를 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월 ○일

환경 동아리 시간에 'PVC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특강을 통해 PVC가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것과 정말 많은 물건이 PVC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통에도 PVC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PVC가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니! 나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친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환경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함께 의논을 했다.

(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귀사에서 제조하는 필통에 대해 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평소 귀사에서 만든 학용품을 자주 구입합니다. 그런데 ㉠ 귀사의 필통이 몸체는 PVC 재질이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필통의 재질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귀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학용품에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많고 그 증가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PVC 사용이라도 줄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 귀사에서도 필통의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작문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글쓰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언급한 개인의 경험이 동기가 되어 (나)의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글쓰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이 글쓰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 ⑤ (가)는 (나)에 비해 글쓴이의 체험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일상을 반성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9. <보기>는 (나)에 대한 학생들의 수정 의견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초고에서는 전의 내용을 언급한 후 글을 읽어 준 것에 감사하는 끝인사로 마무리했잖아. 그런데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전의 내용을 언급한 후에 전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될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 ①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질 좋은 PVC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귀사는 제품의 재질을 개선하기 전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귀사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 ③ 재질을 개선한다면 귀사처럼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개선하지 않는다면 귀사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이 돌아올 것입니다.
- ⑤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귀사 제품을 구매하며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것이고, 귀사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신뢰감을 고객에게 주게 되어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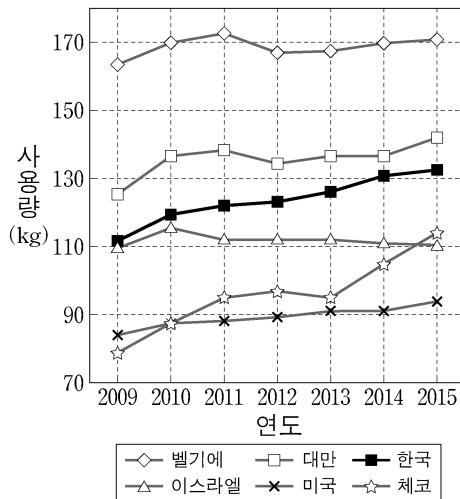
10. 다음은 (나)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①~④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논문 자료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플라스틱은 성분에 따라 PVC, PP, PET 등으로 나뉘는데, 염화 비닐이 주성분인 PVC는 질기고 깨지지 않아 투명 지퍼백, 필통 등에 쓰인다.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식품 용기, 학용품 등에 사용되는 PP나 음료 병 등에 주로 사용되는 PET는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다.

Ⓑ 통계 자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kg)
세계 1위~6위 국가>



Ⓓ 보고서 자료

<재질에 따른 재활용 정도>

재질	재활용 정도	
	용이함	어려움
플라스틱	PVC	○
	PP	○
	무색 PET	○
	유색 PET	○
철	○	

- ① ①: Ⓞ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필통의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지만 몸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인 것이 문제라고 수정해야겠군.
- ② ②: Ⓟ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과 가공성 면에서 유리하며 질기기 때문일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③: Ⓡ를 활용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9~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많고 그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고 수정해야겠군.
- ④ ④: Ⓢ와 Ⓣ를 참고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려면 PVC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첨가되는 물질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⑤ ⑤: Ⓢ와 Ⓣ를 참고하여 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필통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유지할 경우에 재활용이 용이하고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 PP로 바꾸어 달라고 수정해야겠군.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린 말은 망아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강아지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친숙하게 기르는 가축이라는 공통 점이 있으며,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아지’로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돼지도 흔한 가축인데,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는 따로 없다. ‘가축과 그 새끼’를 나타내는 고유어 어휘 체계에서 ‘어린 돼지’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돼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없을 뿐인데, 이렇게 한 언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

어휘적 빈자리는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방식은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어떤 언어에는 ‘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는 존재하지만, 외사촌을 지시하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 외사촌을 지시할 때에는 ‘외삼촌의 자식’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킬 때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등으로 말하는 것도 이러한 방식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방식은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용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무지개의 색채를 나타내는 현대 국어의 어휘 체계는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인데 이 중 ‘빨강, 노랑, 파랑’은 고유어이지만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 ‘풀의 빛깔과 같이 푸른 빛을 약간 띤 녹색’ 등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없기 때문에 한자어 ‘주황(朱黃)’과 ‘초록(草綠)’ 등이 쓰이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상의어로 하의어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누이’는 원래 손위와 손아래를 모두 가리키는 단어인데, 손위를 의미하는 ‘누나’라는 단어는 따로 있으나 ‘손아래’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어서 상의어인 ‘누이’가 그대로 빈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의미 구별을 위해 손아래를 의미하는 ‘누이동생’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누이’는 상의어로도 쓰이고, 하의어로도 쓰인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는 ‘돌’이었고, ‘돌’에 ‘-아지’가 붙어 ‘돌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쓰였다. 그런데 현대 국어의 표준어에서는 ‘돌’이 사라지고, ‘돌’의 자리를 ‘도야지’의 형태가 바뀐 ‘돼지’가 차지하게 되었다.

- ① ‘예전’의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다.
 - ② ‘예전’의 ‘돌’은 ‘도야지’의 하위어로, 의미가 더 한정적이다.
 - ③ 지금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내는 개념은 다르다.
 - ④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어휘적 빈자리는 ‘예전’부터 있었다.
 - ⑤ ‘예전’의 ‘도야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사용된다.

12. 윗글의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 적용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학생 1은 할머니 휴대 전화에 번호를 저장해 드리면서 할머니의 첫 번째, 네 번째 사위는 각각 ‘맏사위’, ‘막냇사위’라고 입력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위를 구별하여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 ‘둘째 사위’, ‘셋째 사위’라고 입력하였다.
 - ㄴ. 학생 2는 ‘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꿩의 하의어로 수꿩에 해당하는 ‘장끼’와 암꿩에 해당하는 ‘까투리’는 알고 있었지만, 꿩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를 몰라 국어사전에서 고유어 ‘꺼병이’를 찾아 사용하였다.
 - ㄷ. 학생 3은 태양계의 행성을 가리키는 어휘 체계인 ‘수성-금성-지구-화성...’을 조사하면서 ‘금성’의 고유어로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있음을 알았는데, ‘개밥바라기’라는 단어는 생소하여 ‘샛별’만을 기록하였다.

- ① \neg ② \neg, \vdash ③ \neg, \vdash
 ④ \vdash, \vdash ⑤ \vdash, \vdash, \vdash

1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종결 어미나 보조사가 달리 쓰인다. 예를 들면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녀’, 설명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뇨’가 쓰인다. 반면,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가’, 설명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고’가 쓰인다.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 어미 ‘-ㄴ다’가 쓰인다. 중세 국어 의문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이 일후미 (㉠)
[이 이름이 무엇인가?]
 - 네 엇데 아니 (㉡)
[네가 어찌 안 가는가?]
 - 그되는 보디 (㉢)
[그대는 보지 않는가?]

	<u>㉠</u>	<u>㉡</u>	<u>㉢</u>
①	므스고	가는뇨	아니흐는다
②	므스고	가는다	아니흐는다
③	므스고	가는뇨	아니흐느녀
④	므스가	가는다	아니흐는다
⑤	므스가	가는뇨	아니흐느녀

14.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풀잎[풀립] ㉡ 읊네[음네] ㉢ 벼훑이[벼흘치]

- ① ㉠, ㉡에서는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 ② ㉠, ㉡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③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된 음운은 서로 다르군.
- ④ ㉠, ㉢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⑤ ㉠은 'ㄹ'로 인해, ㉢은 모음 'ㅣ'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1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뚫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죠? 또한 '쓰다'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 보자.

- 갈다¹ 『…을 …으로』 ②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깎다 『…을』 ③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물다¹ 『…에』 ①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물다² 『…을』 ②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쓸다² 『…을』 ①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피동문	사동문
㉠	㉡

- ① ㉠: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 ② ㉠: 용돈이 이달에 만 원이나 깎였다.
 ㉡: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 ③ ㉠: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
 ㉡: 누나는 봇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 ④ ㉠: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 ⑤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니께요. 머 내가 훼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겄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로 딱 짤라서 말하겄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믄 빈손으로 우찌 하겄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믄 ㉠ 펑 묵고 알 뚝는 거 아니겄소.”

“야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겄소. 하지마는 두고 보믄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러요? 지내 놓고 보믄 알 기니께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려 온 줄 아요? 흥, ㉡ 그랬을 양이문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빌어묵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겄네. 날을 다가야겄다.’

[A]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흑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선 인적기가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댁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게 울리고, 이윽고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 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홍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 자아! 내 왔다! 이제 죽여 보아라! ㉢ 화적 놈 불러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뽑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나?”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 댄다. 서희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홍 씨 손에 웃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B]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돌아본다. 흙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
 나직한 음성이다. 홍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④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울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읍내서 현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홍 씨는 겨우 본채로 돌아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야 우, 우찌 …… 으흐흐흐.”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달려온 현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으리! 이, 이기이 우찌 된 영문입니까!”
 현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 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캤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냐? ⑤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봐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전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였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컬은 것이다.

- 박경리, 「토지」 -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17. ①~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② ②: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리겠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 ③ ③: 홍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④: 서희는 홍 씨에게 홍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⑤: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의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햇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 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혼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홍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홍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홍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를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를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⑦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⑦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텅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얹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⑦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 ②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③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을 중심으로
- ④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20. ⑦~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⑨과 ⑩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⑦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⑨과 ⑩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③ ⑦과 ⑨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⑩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④ ⑦과 ⑨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⑩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⑦과 ⑨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⑩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1.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2.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옹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A]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첨첩한 산중에 수목이 빽빽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으되, ‘만고충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되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 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다라.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한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오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옹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옹이여! 일시가 극난 하여 명일 미명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옹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 마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이러할 제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문제 왈,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옹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옹을 잡으려고 이러저러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 하여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하시니, 좌중이 외쳐 왈,

“우리는 분명 조옹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론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 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중략)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B]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멀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총총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써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 왈,

“그리하오이다.”

노옹이 왈,

“위국으로 가는 조 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빠 알려 주소서.”

하였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왈,

“내가 바로 조옹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왈,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들어갔다가 천명 도사를 만나 수삼 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빠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 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왈,

“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며 왈,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 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둘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 작자 미상, 「조옹전」 -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 문제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②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 ③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옹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 ④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2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 ⑤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나고 있다.

25.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옹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 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① 꿈 속에서 송 문제를 조옹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옹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조옹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 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 ③ 꿈 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옹이 거론되는 것은, 조옹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조옹이 노옹을 통해 전달 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옹이 꿈 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 ⑤ 노옹이 천명 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옹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옹에게 전달하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한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⑦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⑨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⑩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8. ⑦과 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② ⑨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⑦은 ⑨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⑨은 ⑦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⑦과 ⑨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짹지은 것은?

—<보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A	B	C	D
①	불황	거시	사용	미시
②	호황	거시	사용	미시
③	불황	거시	적립	미시
④	호황	미시	적립	거시
⑤	불황	미시	사용	거시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벌어짐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31. 문맥상 의미가 ①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장(文章)을 헤자 흐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 오 공맹(孔孟)을 뵈호려 흐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이로다

이 내 몸 쓸 데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홍진(紅塵)에 절교(絕交) 흐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 흐야
녹수(綠水) 청산(青山)에 시름 업시 늘거 가니
이 등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헌스흘가 두려웨라

<제3장>

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는 알기 슬희여라
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는 알기 즐거웨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흐노라

<제6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흘 손 아마도 풍진(風塵) 봉우(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흘 손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鷗鷺)
⑦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을 써드룬가 흐노라

<제8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흘 제와 태부(太傅) 결해귀(乞骸歸)*흘 제
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뉘 아니 부러흐리
알고도 부지지(不知止)*흐니 나도 몰나 흐노라

<제9장>

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흐니 므스 일 머무느뇨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흐니 므스 일 아니 가리
이제는 가려 정(定)흐니 일홍(逸興) 계워 흐노라

<제11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 * 인생식자 우환시: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 도약등천 불가급: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 성대농포: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 작비금시: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 도팽택 기관거: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 태부 결해귀: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 부지지: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나)

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다.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하게 했다.

"네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중략)…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솔밭이 부려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입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행동은 굽떠 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갈 뿐만 아니라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허물은 네가 내게 들어와 몇대로 함이라. 어째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樂土)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으리라."

이에 귀신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굳은 돌은 고요함으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 당신의 계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쫓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흥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有知)를 버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십시오.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⑦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계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도 했다.

– 성현, 「조용(嘲慵)」 –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술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제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다.
- ② <제3장>의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 ③ <제6장>의 종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다.
- ④ <제9장>의 중장에는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 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⑤ <제9장>의 종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11장>의 종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34. 절교와 위우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봉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백운’과의 ‘위우’를 통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자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물외에 연하 족’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화자가 ‘물외에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5. ⑦과 ①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의 화자는 ‘공맹을 베호’기 위해 ‘성대농포’의 길을 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 ② ①의 ‘나’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며 ‘굳센 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
- ③ ⑦의 화자는 ‘녹수 청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①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⑦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음을 ‘찌드룬가’로 밝히고, ①의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로 드러내고 있다.
- ⑤ ⑦의 화자는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①의 ‘나’는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계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계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계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계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계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 ①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계으름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계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에서, 계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겠군.
- ③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계으름을 탓하면서도 계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계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④ ‘나’가 계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계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⑤ ‘나’가 계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겠군.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①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②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③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자 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⑤ 밝혀지면서 공생발생설이 새롭게 부각

되었다.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분열’을 통해서만 ⑥ 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다.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②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④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 ⑤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39.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공생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 했기 때문이다.
- ③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④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0.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ㄴ.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 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ㄷ.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ㄹ.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양한 카디오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 ① 병원성을 끓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 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끓을 수 있겠군.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끓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이겠군.

42.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구성(構成)한다고
- ② ⓑ: 존재(存在)하고
- ③ ⓒ: 보유(保有)하고
- ④ ⓓ: 조명(照明)되면서
- ⑤ ⓔ: 생성(生成)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뿐으며
새로 두 시의 금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다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팡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나)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놀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들찔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봄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린 돌멩이 위에 엊한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봄 위에 놓아두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

43.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은 (나)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하늘과 돌멩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탐구해 보자.

	사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서술어	새로운 관점
1연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	업혀	①
2연	새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눌려	②
3연	들찔레	들찔레의 꽃이 떨어진다.	버리며	③
4연	하늘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얹힌다	④
5연	모래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	들어올려	⑤

- ① ①: ‘업혀’에 주목하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
- ② ②: ‘눌려’에 주목하면,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③: ‘버리며’에 주목하면,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찔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④: ‘얹힌다’에 주목하면,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⑤: ‘들어올려’에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45.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낙엽’을 ‘망명정부의 지폐’에 연결하여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원’으로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빈자리’를 ‘들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어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 ④ (가)는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나)는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는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나)는 ‘담쟁이덩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산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산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 산대는 대개 고정되어 있었지만 『광해군 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산대인데, 이 명칭은 『성종실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선 영조 때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담은 『봉사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돋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입니다.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볼까요? 수레바퀴 바로 위에는 선녀 인형과 낚시꾼 인형이, 그 위에는 원숭이 인형 등이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 잘 안 보일 테니 이 인형들만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 제시) 지금 보는 선녀 인형은 양팔을 흔들며 춤을 추었답니다. 낚시꾼 인형은 낚싯대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숭이 인형은 돌아가면서 주변 구멍에 얼굴을 내밀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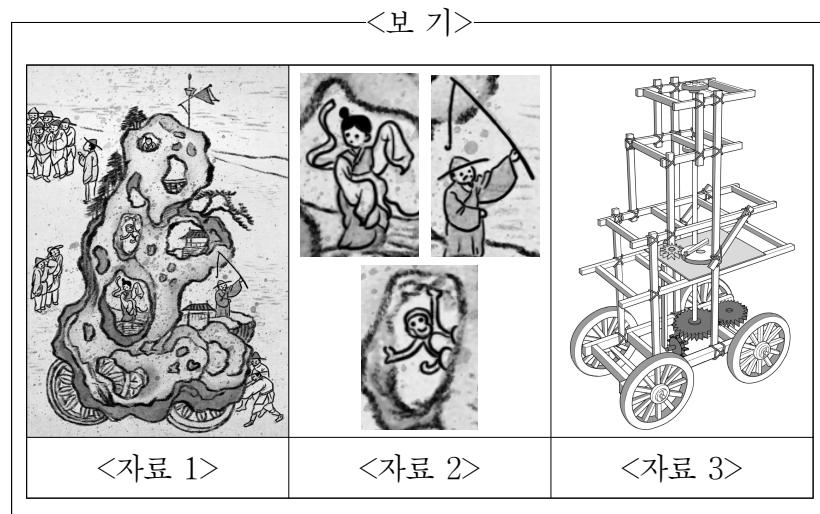
여러분,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산대 아래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이는 수레바퀴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최근 예산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재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산대를 이동하면,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가 수레바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인형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예산대는 이동 시에 인형들을 자동으로 움직여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 줍니다.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돋고 있다.
- ⑤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2. <보기>는 위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예산대의 제작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예산대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③ 예산대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예산대 인형의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⑤ 예산대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3. 다음은 발표 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다. 발표 내용과 답변을 바탕으로 할 때,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지요.”

- ① 예산대에는 여러 인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형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 ② 전통극 무대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 ③ 예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라고 하셨는데, 그 산은 신선의 세계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 ④ 예산대에서 인형극이 행해졌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직접 예산대 위에서 공연할 수 있었나요?
- ⑤ 『봉사도』는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보여 준다고 하셨는데, 예산대 외에 다른 그림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4~5] 다음은 학생이 교지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한 면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한국고 교지 편집부 기자 ○○○입니다.
 사서: 네, 반가워요. 햇살도서관 사서 △△△입니다.
 학생: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도서관을 저희 학교 교지에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햇살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참 좋을 거라고 주변 분들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사서: 우리 도서관을 소개한다니 고마워요.
 학생: 도서관에 다녀온 주민들이 SNS에 '햇살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쓴 것을 봤어요.
 사서: 아마 '책편지' 서비스 때문일 거예요. 이 서비스가 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요.
 학생: 책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서: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학생: 아,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 진행 과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서: 네, 책편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서관에 직접 와서 책을 통해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저희 사서들이 그것을 보고,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정합니다. 다음 날 선정한 이유를 적은 편지를 책과 함께 신청자에게 드립니다. 일종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죠.
 학생: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서: 지역 주민들께 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학생: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싶었나요?
 사서: 우리는 많은 고민 속에 살지만 그 답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책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편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학생: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사서: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책을 고르고 편지를 쓰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비스를 즐겁게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학생: 인자하신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도서관이란 어떤 곳인가요?
 사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책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학생: 책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선생님의 친절한 마음이 한국고 학생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서: 고맙습니다.

4.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있다.
- ② [A]에서 사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면담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고,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하고 있다.
- ⑤ [A]에서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고, [B]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 중 일부 내용을 반복하여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5. 다음은 위 면담을 바탕으로 학생이 쓴 글이다. 면담과 학생 글을 고려할 때,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과 마음이 닿는 햇살도서관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햇살도서관은 책편지 서비스를 하는 마을 도서관이다. 인자한 인상의 사서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책편지 서비스는 햇살도서관에서 신청자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 주고, 그 이유를 편지에 적어 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들은 햇살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말한다. 책편지 서비스는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사서 선생님들 덕분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로 탐색이나 교우 관계에 고민이 있는 한국고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면담에서 받은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포함하여 독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호감을 높인다.
- ② 책편지 서비스가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책편지 서비스를 통한 기대 효과를 알린다.
- ③ 마지막 질문에 대한 사서의 답변 중 일부를 글의 부제로 제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다.
- ④ 면담에서 알게 된 책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제시하여 책편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⑤ 면담에서 학생이 사서에게 언급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도서관의 장점을 부각한다.

[6~7] 다음은 작문 과제에 따라 작성한 학생들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학생의 글]

(가) 학생 1

옥수수 씨앗을 심으러 학교 텁밭에 가는 날이었다. 처음 심어 보는 옥수수라 마음이 설렜다. 그런데 텁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잡초를 뽑고 텁밭의 흙을 정리하느라 흙먼지가 날리고 땀이 흘렀다. 생각보다 일이 많고 힘들었다. 괜히 시작한 것 같아 후회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투덜대며 얼굴을 찡그렸다. 옆에서 나를 지켜보신 선생님께서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야지.”라고 하셨다. 생각해 보니 텁밭에 오면서 느꼈던 설렘은 어느새 투덜댐으로 바뀌어 있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 텁밭에 올 때의 마음으로 옥수수 씨앗을 심으며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나) 학생 2

선배와 학교 텁밭에 옥수수 씨앗을 심고 아침저녁으로 살피며 싹이 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열흘쯤 지나자 선배의 옥수수는 싹이 올라오는데, 내 옥수수의 싹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여러 번 텁밭에 갔다. 선배는 때가 되면 싹이 돋아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고 했다. 선배의 말에 나를 되돌아보았다. 왜 그렇게 조급해했던 것일까? 나는 평소 무언가를 여유롭게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랄 때가 많았다. 이런 태도는 친구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 가기 위한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한데,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조급해하며 서운했던 적이 많았다.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급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옥수수 싹이 어느새 올라와 있었다.

6. (가)와 (나)를 통해 두 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타인의 조언을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
- ②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식물이 자라는 모습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였다.
- ③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④ ‘학생 1’은 같은 문장을 다시 인용하며, ‘학생 2’는 자신이 원했던 상황이 이루어진 모습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 ⑤ ‘학생 1’은 자신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학생 2’는 자신의 태도를 타인과의 관계와 연결 지어 내용을 전개하였다.

7. <보기>는 (가)와 (나)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친구들이 쓴 글 읽어 봤어? 소감이 어때?

B: ‘학생 1’, ‘학생 2’ 모두 학교 텁밭에서 체험한 내용에 대해 쓴 점이 흥미로웠어. ‘학생 1’은 자신이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한 점이 좋았고, ‘학생 2’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 점이 인상 깊었어.

A: 나도 그렇게 생각해. ㉠ 그런데 기다림의 자세만으로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B: 그럼. ㉡ 예전에 수영을 배울 때 빨리 잘하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은 적이 있어서 ‘학생 2’의 생각이 이해 되더라. 나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야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실력이 늘더라고.

A: ㉢ ‘학생 2’의 생각처럼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 노력에 따라 목표한 결과를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어.

B: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 같은 글을 읽고 이야기해 보니, 서로의 생각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

① ㉠: ‘학생 2’의 글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대의 생각을 묻고 있다.

② ㉡: 자신의 경험을 들어 ‘학생 2’의 글에 공감하고 있다.

③ ㉢: ‘학생 2’의 글에 담긴 생각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고 있다.

④ ㉣: ‘학생 2’의 글과 자신의 생각의 공통점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⑤ ㉤: ‘학생 1’, ‘학생 2’의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 이유를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8~10] (가)는 작문 과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과제

- 주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
- 글의 목적: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기
- 예상 독자: 확증 편향의 개념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글

만약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증거를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형 제도에 찬성, 반대하는 대학생들에게 사형 제도의 효과에 관한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공한 후 반응을 살피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지.’라고 반응한 반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이유를 들어 그 연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심리적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확증 편향에 빠질 경우 비판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다. 또한 확증 편향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은 사회적으로 편향된 통념을 형성하여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존 증거들을 탐색하게 되어 판단의 [A] 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그와 모순되는 증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기에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증 편향에 빠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판단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이 불러일으킬 영향을 예상하여 책임감을 가진다면, 판단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이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서로 갈등하는 일을 막으려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8.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것은?

- ①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야겠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겠다.
- ③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해야겠다.
- ④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확증 편향을 보여 주는 예를 들어 개념을 설명해야겠다.
- ⑤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쟁점을 두고 우리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을 제시해야겠다.

9. (나)에 제시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기>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비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갈릴레이의 태양의 회전 이동과 목성의 위성 존재 등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지동설이 옳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과학계에서는 천동설을 지지했기에 갈릴레이의 거듭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거쳐 이를 거부하였다. 지동설은 갈릴레이 사후에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 ①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한다면 비판적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②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확증 편향으로 인한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다.
- ③ 현상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관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④ 집단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치더라도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가치관이 다양한 세상에서 일관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확증 편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10.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 중 [A]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즉,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의사 결정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① 앞 문단과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 문단 간의 관계를 알려 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게 어때?
- ②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시된 방안의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추가하는 게 어때?
- ③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과 유사하니까 두 문장의 핵심이 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하는 게 어때?
- ④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이 문단의 통일성에서 벗어나니까 해당 문장을 삭제하는 게 어때?
- ⑤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주장에 대한 근거로 추가하는 게 어때?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영수는 서울에서/서울에 산다.
- (2) 민수는 방에서/*방에 공부하고 있다.
- (3) 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열었다.

(1)에서는 ‘에’와 ‘에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는 ‘에서’를 쓰고 ‘에’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에서’를 주격 조사로 쓸 수 있을까?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에’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2)에서 ‘방에’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셔’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애/에/예, 이/의’와 ‘이시다(현대 국어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애/에/예, 이/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애/에/예, 이/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중세 국어에서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의 ‘에서’로 이어지는데 (3)과 같은 예에서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 수 없다. 부사격 조사 ‘에’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붙은 ‘께서’도 주격 조사로 쓰인다. ‘께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찌셔’ 역시 ‘찌’와 ‘셔’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 조사로 변화하여 현대 국어의 ‘께서’로 이어졌다. 중세 국어의 ‘에서’, 현대 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의 ‘찌셔’,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 ②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 ③ 중세 국어의 ‘애/에/예’는 ‘이/의’와 달리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 ④ 현대 국어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셔’에서 ‘서’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 ⑤ 중세 국어 ‘에셔’가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 앞에 유정 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현대 국어의 예	
①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②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③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중세 국어의 예	
④ 一物이라도 그위에셔 다 아소물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⑤ 부텨찌셔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	

- ① ①: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② ②: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③ ③: 높임의 유정 명사인 ‘할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었군.
- ④ ④: ‘그위에셔’는 ‘그위’에 주격 조사 ‘예서’가 붙었군.
- ⑤ ⑤: 높임의 유정 명사인 ‘부텨’에 부사격 조사 ‘찌셔’가 붙었군.

13. <보기>의 ④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음을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아래 표에서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예	찰흙이	안팎을	넋이	끌을	숲에
부정확한 발음	[찰호기]	[안파글]	[너기]	[끄출]	[수베]
	↓	↓	↓	↓	↓
정확한 발음	[찰흘기]	[안파끌]	[넉씨]	[끄틀]	[수폐]

다 봤나요? 그럼 정확한 발음을 참고하여,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해 볼까요?

학생: ①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정확한 발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세요.

- ①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하는데, [찰호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② ‘안팎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안파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③ ‘넋이’는 연음을 하고 된소리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너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④ ‘끌을’은 연음을 하고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끄출]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⑤ ‘숲에’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수베]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14. <보기>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붙잡다’의 어간 ‘붙-’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뉜다.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을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는 말을 파생어라 한다. 그런데 ㉠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때 ㉡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이다.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합성어이다.

- ① 밤새 거센 비바람이 내리쳤다.
- ②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 ③ 차바퀴가 진흙 바닥에서 헛돌았다.
- ④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이 오간다.
- ⑤ 그들은 끊임없이 짓밟혀도 굴하지 않았다.

15. <보기>의 ㉠~⑤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습 활동]

겹문장은 홀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홀문장을 활용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겹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료〉	〈조건〉
• 날씨가 춥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형은 물을 마셨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열음을 먹었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형은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① ㉠: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열음을 먹었다.
- ② ㉡: 형은 열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③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열음을 먹었다.
- ④ ㉣: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 ⑤ ㉤: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열음을 먹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 엊더훈고
넷사름 풍류를 미출가 뭇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에 뭇쳐 이셔 지락(至樂)을 뭇를 것가

ⓐ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앓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서라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흐르도다
칼로 물아 낸가 봇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헌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아니 흥이의 다Russanya
시비예 거려 보고 ⓑ 정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호야 산일(山日)이 적적호다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쟈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흐고 육기(浴沂)란 내일 흐새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희 조수(釣水) 흐새
곳 과여 낙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뒷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려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 준중(樽中)이 뷔엿거둔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희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희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호야 ④ 시냇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이 갓갑도다 쳐 미이 균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 울울리: 빼빼하게 우거진 속.

*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나)

ⓓ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니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1수>

일곡은 어더미오 ⓔ 관암에 희 비췬다
평무(平蕪)에 니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이곡은 어더미오 화암에 춘만(春晚)커다
벽파*에 곳을 썩워 야외로 보너노라
ⓕ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훈들 엇더리 <3수>

오곡은 어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뒷타
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함*도 ݣ이 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 흐리라 <6수>

칠곡은 어더미오 ① 풍암에 추색(秋色) 뒷타
청상(淸霜) 잿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 로다
한암(寒巖)에 혼조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구곡은 어더미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
④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흐더라 <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녹준: 술잔 또는 술동이.
* 벽파: 푸른 물결.
* 소쇄 흠: 기운이 맑고 깨끗함.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충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⑦~⑪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다.

- ① ⑦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② ⑨에서는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
- ③ ⑩에서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 ④ ⑪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⑫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18.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19. ①~⑥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거쳐인 ①를 나와 ②와 ③의 장소들로 옮겨 다니고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④와 ⑤는 ⑥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②와 ④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①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④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③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⑤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전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①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 할 수 있겠군.
-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사료의 불완전성은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그 불완전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된다.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④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유물, 그림, 구전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⑤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 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시각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일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⑥ 나타났다.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다. 반면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띤다.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닮은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하여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춰지게 된다.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⑦ 이룬다.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연관된다.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쳐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일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⑧ 펼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가는 ⑨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역사가는 ⑩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지어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언어, 물질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작가의 의도와 상관 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⑪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한다. 역사가가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이다.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 까지 지니고 있다.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 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문혀 있던 목소리를 표현해 낸다.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한 주체가 된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의 개념을 밝히면서 영화와 역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혀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하여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 서술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영화가 역사 서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 ③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강하다.
- ⑤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호이다.

23. ⑨, ⑩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 바르게 짹지은 것은?

<보기>

- ㄱ. 조선 후기 유행했던 환소리를 자료로 활용하여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 ㄴ.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 ㄷ.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들에서 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공통된 요소를 분석했다.
- ㄹ. 17세기의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집의 여러 곳에서 문장을 차용했다.

⑨⑩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 ⑤ ㄹ

24. ⑦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②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 ③ 영화가 늘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공식 역사의 입장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 ④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는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둔 영화는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일 뿐이다.
- ⑤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982년 작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다. 당시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한 역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했다. 1993년,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다.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임이 드러난다. 전자는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했다. 반면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을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

- ①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하는군.
- ②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을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군.
- ③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제작됐지만, 그 속에도 역사에 대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겠군.
- ④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역사적 고증에 바탕을 두고 당시 사건과 생활상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가깝겠군.
- ⑤ 역사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군.

26. 문맥상 ⑨~⑩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⑨: 대면(對面)할
- ② ⑩: 간주(看做)되었던
- ③ ⑪: 대두(擡頭)했다
- ④ ⑫: 결합(結合)한다
- ⑤ ⑬: 전개(展開)하기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 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④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1. 문맥상 의미가 ①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쳐자를 어이할꼬? 어떻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 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 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라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떻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월,

“이 땡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땡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헌양(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총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평이라고도 하는데, 귀댁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 적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거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금사를 문답 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벗하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넉넉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여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벗에 흑공단 두루마기, 흑공단 끝동이며, 주동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헌양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쌓아 두었는가?”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늘 미천한 도적놈을 무엇이라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협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둡게 하리로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라.”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로다.”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같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냐?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왜 계시다 일러라.”
 하거늘 쥐란 놈이 골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면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끊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 작자 미상, 「장끼전」 -

* 현양: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소와 말도 풀을 나눠 먹고, 산돼지도 헛을 나눠 먹는다.
 * 추심: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 ③ 속담과 옛글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33.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방문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서대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
-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서대주를 대할 방식을 계획했다.
-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시종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딱부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 ④ 서대주의 거처를 확인하면서, 장끼는 서대주의 환심을 살 만하게, 딱부리는 서대주의 반감을 살 만하게 표현했다.
- ⑤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을, 장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두었고 딱부리는 도적질을 벌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두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 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내고 있다.

- ① 장끼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군.
- ③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골을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업신여기는 신흥 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신흥 부호의 위세를 알 수 있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가을 아침
 쥐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⑦ 수풀이 호르르 벌레가 호르르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젖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온 살결 터럭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의
 가장 고웁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주리나니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느뇨

⑤ 햇빛이 처음 쏟아오아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그때에 토록 하고 동백 한 알은 빠지나니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온 소리의 앞 소리요

온 빛깔의 비롯이라

⑥ 이 청명에 포근 쭉어진 내 마음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 김영랑, 「청명」 -

* 쭉어진 : 계절의 정취에 젖어 든.

(나)

뒷동산 청솔잎을 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⑦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물 위에 짤랑짤랑 구슬알을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의 구슬땀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⑧ 아무려면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오월도 청청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싣는 날에.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연」 -

3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나)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36. ⑦~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⑧은 청명한 날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⑨은 청명한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낯익음에 비유하여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⑩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⑪은 청청한 날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여, 서로 교감·소통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로,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로 인식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인은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형상화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나)에서 '바람'이 '뒷동산 청솔잎을 벗질'하는 것은 자연과 자연 간의 교감을 드러내는군.
- ②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가 '무어라' 하고 '미루나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을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전하고, 이를 '여인'도 '정자나무'에게 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 간의 유대감을 드러내는군.
- ④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과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를, (나)에서 '오월'에 '산'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가는 생태 공동체를 형상화하는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위성항법장치)나 IMU(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한다.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⑦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나에 따라 달라진다.
- ②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 ③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 ④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에 위성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 ⑤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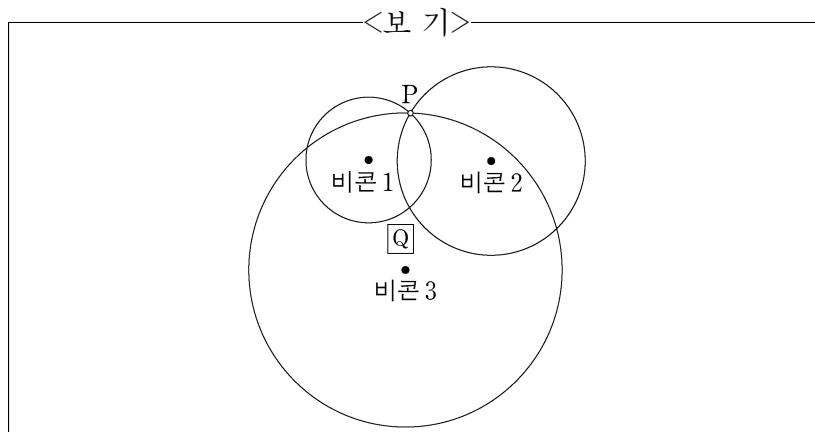
39. **오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 ② GPS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오차가 커진다.
- ③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 ④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
- ⑤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40. ⑦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 ②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 ④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 ⑤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의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41.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각 원의 반지름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이다.

*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Q**의 위치에 있다.

(단,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근접성 기법과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 ②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 비콘 2, 비콘 3의 신호 순이겠군.
- ③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 ④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 ⑤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2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욱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욱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텔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욱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합일 수 있었다. 회의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지욱이 최상윤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상윤 선생에게서와 같은 어떤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해 온 성격 이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보다도 지욱이 더더욱 그 선생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너무나도 일사불란한 언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씻을 수 없는 가식의 냄새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의 생애에서 이처럼이나 말끔하게 후회나 의구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깐깐하고 결백스런 노인에게서라도 어찌 따뜻한 아랫목과 좋은 음식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엄격한 극기의 세월이었던들 그것이 어찌 감히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욕망까지를 송두리째 균열시켜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노인은 어찌하여 그것을 끝끝내 시인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로 그의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단 말인가—

(중략)

“이거 아무리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야 뭐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위인의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데 찾아온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야.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 보라는 거야. 이유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반말 투로 **윽박질**러 오는 피문오 씨의 어조에 지욱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는 표정이었으나,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문오 씨의 행패는 걸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야? 당신 눈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땅 되잖은 소리로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 모양이지? 그래, 뭐가 어째? 내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구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구?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들려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릴 가지고, 정 내게 ⑦ 말재간을 한번 부려 보고 싶어서 아래? 당신 눈엔 이 피문오가 그래 그만 ⑧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명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내가 아까부터 참자 참자 하다 보니 이 친구 아주 형편없이 맹랑한 데가 있는 작자로구만 그래.”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온 듯 두 눈알을 부라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쥔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욱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욱은 그만 기가 콕 질리고 말았다. ⑨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불현듯 최상윤 선생의 일이 이 처참스런 곤욕을 견뎌 낼 수 있는 어떤 서광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라 왔다. 최상윤 선생과의 약속이 그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런 자의 자서전 따윌 대필하려 했다니! 최상윤 선생과 같은 분에게 조차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던 이 지욱이 아닌가. 이런 자의 책을 쓰면서 그의 밑구멍을 훑느니 차라리 선생의 빨밑에라도 나가 엎드려 선생의 신념을 찬미함이 낫지 않으냐. 참자! 작자의 일을 피하자면 이쯤 굴욕은 즐거이 참아 넘기자. 참아서 넘겨야 한다—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 정도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선생! ⑬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아니 글에서는 그처럼 잘난 체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 데 귀가 꽉 멀어 버리셨나. 왜 통 대답이 없으셨나? 그렇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 주실까?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율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씀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⑭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 줄까?”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욱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피문오 씨는 무슨 생각을 해 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청승맞도록 능청스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쳐 대기 시작했다.

⑬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를 고침시다아 — 채권 삽니다아 —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삽니다아 —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오아 —”

고저단속(高低斷續)을 적당히 조화시켜 가며 길게 외쳐 대고 난 피문오 씨가 이젠 좀 알아듣겠느냐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욱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

4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며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43.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피문오가 지욱의 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멸의 감정을 담고 있다.
- ② ⑧: 지욱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피문오의 성난 감정을 담고 있다.
- ③ ⑨: 피문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지욱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든 상태를 나타낸다.
- ④ ⑩: 피문오가 지욱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닦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⑪: 침묵하는 지욱에게 피문오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4. <보기>를 참고할 때,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서전들 쓰십시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 ①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를 사로잡는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 투로’ 작가를 ‘으박’지르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에게 아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⑤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들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삶을 미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45. ⑪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문오는 지욱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여 지욱을 우롱하고 있다.
- ② 피문오가 자서전을 상품으로 팔기 위한 방법을 지욱에게 직접 보여 주고 있다.
- ③ 피문오가 ‘잘난 소리’를 하는 지욱에게 자신은 ‘무식한 놈’이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 ④ 피문오가 자서전 쓰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야 한다고 지욱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⑤ 피문오는 지욱의 자서전 쓰기에 소재를 제공하고자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어 왔던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필통에는 어떤 필기구가 가장 많은가요?
(청중의 답을 듣고) 네,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군요. 그럼 사람들은 왜 볼펜을 애용할까요?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볼펜은 글씨를 쓸 때 종이가 찢어지거나 볼펜 끝 부분이 망가지는 일이 적습니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자료 1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쓰이던 만년필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촉이 날카로워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거친 표면에 글씨를 쓰면 펜촉이 망가지기도 쉽습니다.

아, 질문이 있으시네요. (⑦ 청중의 질문을 듣고) 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이로 흘러가서 쉽게 필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네, 그럼 발표를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 2를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글씨를 쓸 때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볼이 구르지요. 이 과정에서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으며 글씨가 써집니다. 그런데 볼펜의 볼이 빠진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죠? (자료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잉크가 들어갈 대롱의 끝에 볼을 넣은 후 밑 부분을 오므려 볼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볼이 빠지는 문제를 정밀한 기술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펜은 종류가 다양하여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글자가 물에 잘 번지지 않는 유성 볼펜, 필기감이 부드러운 수성 볼펜, 여러 색을 하나에 담은 다색 볼펜,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는 볼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압 볼펜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볼펜은 신문 기자였던 라즐로 비로가 특허를 낸 이후 상용화되면서 기존 필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대상의 종류를 열거하여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⑤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발표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이유를 바르게 짚지은 것은? [3점]



자료	발표 내용	매체 자료를 활용한 이유
① 자료 1	만년필에 적용된 모세관 현상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의 차이를 대비하여 보여 주기 위해
② 자료 2	볼펜의 제작 과정	볼펜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단순화하여 보여 주기 위해
③ 자료 2	볼펜으로 글씨가 써지는 원리	볼이 있는 부분의 단면을 확대하여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는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해
④ 자료 3	볼펜의 볼을 고정하는 과정	볼펜의 볼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⑤ 자료 3	볼펜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	잉크가 흘러나오는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보여 주기 위해

3.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⑦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모세관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 ② 만년필 외에 모세관 현상이 적용되어 손쉽게 필기할 수 있는 필기구에는 무엇이 있나요?
- ③ 만년필 펜촉의 굵기와 필기할 때 힘을 들이는 정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 ④ 만년필로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쓰려면 어떤 형태의 펜촉을 사용해야 하나요?
- ⑤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4~7]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둘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공 지능과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 면접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회사는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큽니다. 실제로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회사는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의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성이 큰 데 반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인공 지능 면접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반대 2: 기존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오히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축적된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찬성 1: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로는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 [A]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회사의 인사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인공 지능 면접이 신뢰성도 높습니다. 회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잠재력 평가에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먼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기술적 결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접이 원활하지 않거나 중단되어 지원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지원자들의 면접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성만 고려하면 미래에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돼 결국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지능의 빅데이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가 축적된 결과물**로서 특정 대상과 사안에 치우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찬성 1: △△회사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지만, 통계 자료에서 보다시피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B]

반대 1: 경제적인 이유로 인공 지능 면접이 활용되고 있지만,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의 한계가 드러난다면 이를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토론 후 과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확장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에 대해 주장하는 글 쓰기

(나) 학생의 초고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공 지능 앞에서 면접을 보느라 진땀을 흘리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 미래에 인공 지능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 까지 대신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인공 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인공 지능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돋는 도구일 뿐이다. 인간이 만든 도구인 인공 지능이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구일 뿐인 기계가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 지능이 인간을 판단한다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인공 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같은 사고는 불가능하다. 인공 지능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지만 인간은 말과 행동 이면의 의미까지 고려하여 사고한다. 인공 지능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기계에 불과하므로, 통계적 분석을 할 뿐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기계가 타당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다면 머지않아 인간이 기계에 예속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인공 지능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반면 인간은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인간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타인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4.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쟁점 1]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편리한가?

- ▶ 찬성 1: 때와 장소에 얹매이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 반대 1: 기술적 결합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지원자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①

[쟁점 2]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경제적인가?

- ▶ 찬성 1: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큼을 비용 절감의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②
- ▶ 반대 1: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되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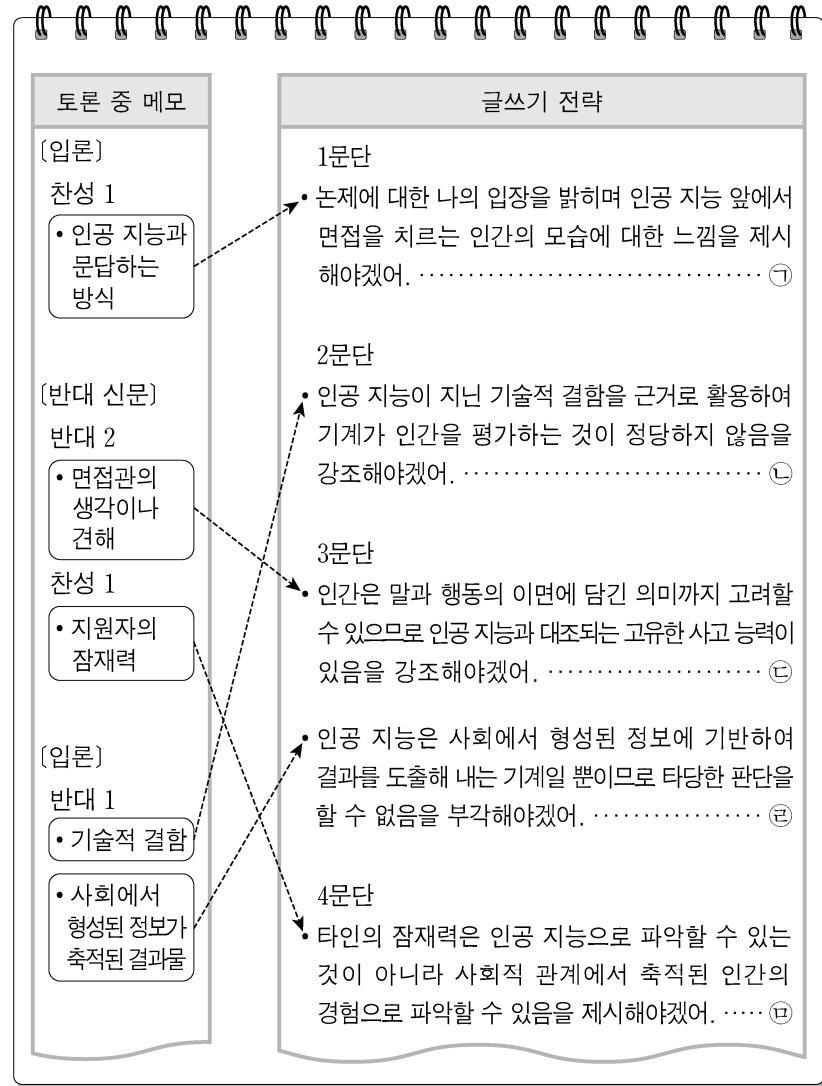
[쟁점 3]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의 평가는 객관적인가?

- ▶ 찬성 1: 면접관의 주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객관적임을 밝히고 있다. ④
- ▶ 반대 1: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객관적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반대 2는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합한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
- ② [A]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반박하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B]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진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 ④ [B]의 반대 1은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를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의 찬성 1과 [B]의 반대 1은 모두 상대측이 언급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다.

6. 다음은 (가)에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과제 학습장의 일부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7.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끝 부분에 새로운 문단을 이어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친구의 조언: 1문단에서 제기한 첫째 물음에 대해 너의 입장 을 드러내야 할 것 같아.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2문단에 썼던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좋겠어.

- ① 인공 지능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대신할 수 없다. 인공 지능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
- ②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신하기보다는 보조하는 도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공 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 ③ 인공 지능은 인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공 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객체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
- ④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공 지능은 인간이 이용하는 객체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 ⑤ 객체인 인공 지능을 이용하는 인간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은 인공 지능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8~10]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이에 따라 쓴 초고이다. 둘다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작문 상황]

- 목적: 지역 방언 보호에 대한 관심 촉구
- 주제: 지역 방언의 보호가 필요하다.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독자 분석]

-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실태를 잘 모름. ①
- 지역 방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②

(나) 학생의 초고

세계에서 언어가 사라져 가는 현상은 우리나라 지역 방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 방언의 어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방언 어휘 중 특정 단어들을 우리 지역 초등학생의 80% 이상, 중학생의 60% 이상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한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는 제주 방언을 소멸 직전의 단계인 4단계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하였다.

[A]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표준어가 확산되어 가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일부 학생들은 표준어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며 지역 방언이 꼭 필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지역 방언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역 방언의 가치 때문이다. 지역 방언은 표준어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정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다슬기' 외에 '올갱이', '데사리', '민물고동'과 같이 동일한 대상을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지역 방언이 있는 것처럼 지역 방언은 우리말의 어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B] 지역 방언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이다.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

- ① [자료 1]: 지역 방언에 대한 긍정적 느낌의 비율과 부정적 느낌의 비율 변화 양상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지역 방언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 ② [자료 1]: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의 순위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 방언 교육 정책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 ③ [자료 2]: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식적 상황에서의 표준어 사용 교육이 부재한 것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 ④ [자료 2]: 공식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준어를 일상에서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표준어를 쓰려는 태도를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 ⑤ [자료 1]과 [자료 2]: 지역 방언에 대한 표준어 사용자와 지역 방언 사용자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대중 매체의 지역 방언에 대한 편향성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8. ㉠, ㉡을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지역 방언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 ② ㉠을 고려하여,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 방언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 ③ ㉠을 고려하여,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지역 방언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제시한다.
- ④ ㉡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며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
- ⑤ ㉡을 고려하여, 지역 방언의 예를 활용하며 지역 방언의 가치를 설명한다.

9.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료 1] 언어 의식 조사	[자료 2] 전문가 인터뷰																				
<p>표준어 사용자가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p> <table border="1"> <caption>2010년</caption> <thead> <tr> <th>느낌</th> <th>비율 (%)</th> </tr> </thead> <tbody> <tr><td>편하고 친근함</td><td>58.9</td></tr> <tr><td>불편하고 어색함</td><td>17.0</td></tr> <tr><td>별 느낌 없음</td><td>23.3</td></tr> <tr><td>모름/무응답</td><td>0.8</td></tr> </tbody> </table> <table border="1"> <caption>2015년</caption> <thead> <tr> <th>느낌</th> <th>비율 (%)</th> </tr> </thead> <tbody> <tr><td>편하고 친근함</td><td>42.5</td></tr> <tr><td>불편하고 어색함</td><td>38.3</td></tr> <tr><td>별 느낌 없음</td><td>19.1</td></tr> <tr><td>모름/무응답</td><td>0.1</td></tr> </tbody> </table>	느낌	비율 (%)	편하고 친근함	58.9	불편하고 어색함	17.0	별 느낌 없음	23.3	모름/무응답	0.8	느낌	비율 (%)	편하고 친근함	42.5	불편하고 어색함	38.3	별 느낌 없음	19.1	모름/무응답	0.1	<p>“방언 사용 지역에서는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나 표준어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도 표준어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준어가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p>
느낌	비율 (%)																				
편하고 친근함	58.9																				
불편하고 어색함	17.0																				
별 느낌 없음	23.3																				
모름/무응답	0.8																				
느낌	비율 (%)																				
편하고 친근함	42.5																				
불편하고 어색함	38.3																				
별 느낌 없음	19.1																				
모름/무응답	0.1																				

10. 다음은 학생이 [B]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이다. ①, ②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짜지은 것은?

점검	[B]에는 (①)해야겠다.
고친 글	<p>지역 방언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이다. 우리의 언어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방언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시급하다. 사라져 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p>
재점검	고친 글을 읽어 보았는데 (②)해야겠다.

다시 고친 글	지역 방언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이다. 사라져 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
---------	--

- ① ①: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니 이를 추가
② ②: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 ② ①: 문단이 완결되지 않았으니 마무리하는 문장을 추가
② ②: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 ③ ①: 문장 간 연결이 긴밀하지 않으니 연결 표현을 추가
③ ②: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 ④ ①: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부족하니 이를 추가
④ ②: 글의 맥락에 부적합한 담화 표지가 있으니 이를 삭제
- ⑤ ①: 주요 개념의 설명이 부족하니 부연 설명을 추가
⑤ ②: 앞 문단에서 다룬 중복된 내용이 있으니 이를 삭제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의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면 다의어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나 ‘한 살을 먹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만 함께 쓰여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둘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손이 부족하다’, ‘손에 넣다’처럼 각각 ‘노동력’,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줄(명)

- ①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뜯거나 둉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 예) 줄로 뜯었다.
- ② 길이로 죽 벌이거나 늘여 있는 것. 예) 아이들이 줄을 섰다.
- ③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나 인연. 예) 내 친구는 그쪽 사람들과 줄이 닿는다.

예를 들어 ‘줄’의 중심 의미는 위의 ①인데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유사하여 ②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연결이라는 속성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③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이때 ②와 ③은 ‘줄’의 주변 의미이다.

그런데 ⑦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 중심 의미인데 ‘앞 세대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는 각각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장차 올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간의 축에서 과거나 미래 중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른 차이로서 이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된다.

11.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 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
- ② ‘앉다’의 의미 중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요직에 앉다’처럼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더 높겠군.
- ③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이 두 의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겠군.
- ④ ‘팽이를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군.
- ⑤ 사람의 감각 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를 올렸다’에서의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군.

12.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⑦의 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영희: 자꾸 말해 미안한데 모둠 발표 자료 좀 줄래?
민수: 너 빚쟁이 같다. 나한테 자료 맡겨 놓은 거 같네.
영희: 이를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 근데 빚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민수: 아니, 꼭 빌려 준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료 여기 있어. 가현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다니까 금방 올 거야.
영희: 그래. 발표 끝난 뒤에 다 같이 밥 먹자.

- | | |
|--------------|------------|
| ① 빚쟁이 | ② 빚쟁이, 금방 |
| ③ 뒤, 돈 | ④ 뒤, 금방, 돈 |
| ⑤ 빚쟁이, 뒤, 금방 | |

13.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① 모음, ② 자음+모음, ③ 모음+자음, ④ 자음+모음+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꽃]’은 ④, ‘잎[잎]’은 ③에 속하지요.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 [꼰닙]으로 발음돼요. 이때 [닙]은 ④에 해당되며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바뀐 것이지요.

이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밥상(밥+상), 집일(집+일), 의복함(의복+함),
국물(국+물), 화살(활+살)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밥상[밥상]’에서의 [상]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달라졌어요.
- ② ‘집일[집일]’에서의 [일]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일[일]’과 달라졌어요.
- ③ ‘의복함[의보함]’에서의 [함]은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함[함]’과 달라졌어요.
- ④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국[국]’과 같아요.
- ⑤ ‘화살[화살]’에서의 [화]는 털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활[활]’과 같아요.

14. <학습 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의 ㉠~㉡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자료]

- | | |
|------------------------|--------------------------|
| ⓐ 하늘에 <u>뜬</u> 태양 | ⓑ 우리가 즐겨 <u>부르던</u> 노래 |
| ⓒ 늘 <u>푸르던</u> 하늘 | ⓓ 운동장에 <u>남은</u> 아이들 |
| ⓔ 네가 <u>읽는</u> 소설 | ⓕ 이미 아이들로 가득 <u>찬</u> 교실 |
| ⓖ 달리기가 제일 <u>빠른</u> 친구 | |

[표] 관형사형 어미 체계

	동사	형용사
현재	-는	㉠
과거	㉡	㉡
	-던	
미래	-((으)ㄹ)	-((으)ㄹ)

- ① Ⓛ의 '뜬'에 쓰인 어미 '-(으)ㄴ'은 ㉠에 해당한다.
- ② Ⓜ의 '부르던'과 Ⓝ의 '푸르던'에 쓰인 어미 '-던'은 ㉡에 해당한다.
- ③ Ⓞ의 '남은'과 Ⓟ의 '찬'에 쓰인 어미 '-(으)ㄴ'은 ㉡에 해당한다.
- ④ Ⓠ의 '읽는'에 쓰인 어미 '-는'은 ㉡에 해당한다.
- ⑤ Ⓡ의 '빠른'에 쓰인 어미 '-(으)ㄴ'은 ㉡에 해당한다.

15.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이', '∅(영형태)', ']'로 실현되었다.
-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
예) 바비(밥+이) [밥이]
 - 모음 '이'나 반모음 ']' 다음에는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
예) 활 쏘리(활 쏠 이+∅) [활 쏠 이가], 새(새+∅) [새가]
 - 모음 '이'와 반모음 ']' 이외의 모음 다음에는 ']'가 나타났다. 예) 쇠(쇼+]) [소가]
 -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도 했다. ㉡
예) 꽃 끄코 [꽃 좋고], 나모 셋는 [나무 서 있는]

<보기 2>

- | | |
|----------------|---------------|
| ⓐ: 나리 쪄므로 | [날이 저물어] |
| ⓑ: 太子 오느다 드르시고 | [태자 온다 들으시고] |
| ⓒ: 내해 득리 업도다 | [개천에 다리가 없도다] |
| ⓓ: 아드리 孝道하고 | [아들이 효도하고] |
| ⓔ: 孔子] 드르시고 | [공자가 들으시고]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⑥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⑦ 본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⑧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⑨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약 읊이 ㉠이라면 읊은 동시에 ㉡일 수 없다.
- ② ㉠은 읊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 ③ ㉠은 읊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읊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④ ㉡은 읊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은 읊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19.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읽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와 ㉡ 이외에는 ㉢과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적용

[A]

- ① 병이 ㉠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 ② 병이 ㉢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 ③ 병이 ㉡를 알게 된 후에 ㉢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을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 ④ 병이 ㉡과 ㉢을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과 ㉢이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 ⑤ 병과 정이 ㉢를 알게 되기 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2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② ⓑ: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③ ⓒ: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④ ⓓ: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녁 두던 밤과 크나큰 너븐 들판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혼 빗치 되야 있다
 중양이 거의로다 내노리 혼쟈스라
 불근 게 여를고 놀은 놀기 술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슬소냐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몰래예 밤불이 불가시니
 ① 게 잡는 아희들이 그물을 훗더 있고
 호두포* 엔 구비에 아적들이 미려오니
 ② 둑둔비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푸는 당시로다
 경(景)도 빅거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A]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갑시 이실 거시련들
 적막히 다든 문애 내 분으로 드려오라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③ 모재(茅齋)*에 빗чин 빗치 옥루(玉樓)라 다룰소냐
 청준(淸樽)을 밧째 열고 큰 잔의 그득 브어
 ④ 죽엽(竹葉) 그는 술를 들빛 조차 거후로니
 표연한 일홍(逸興)이 져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謫仙) 이려호야 둘을 보고 빛치닷다
 춘하추동애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애 완상이 새로오니
 ⑤ 몸이 한가호나 귀 눈은 겨를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륵이나 다룰소냐
 ⑥ 강호 어조(魚鳥)애 새 맹세 김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흔(夢魂)*이 섯거였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셔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이 몸이 이려구름도 역군은(亦君恩)이 샷다

-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

* 호두포: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애내성: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사조: 사사로이 비춤.

* 모재: 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옥당금마: 관직 생활.

* 몽흔: 꿈.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파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엄자룡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④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⑤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⑥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둑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⑦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그물을 걷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펼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⑧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침침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빛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 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벼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얹매여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뜯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⑨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 성사: 옛날 장전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7세기 가사 「월선현십육경가」는 월선현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ॲ쟈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불근 계’와 살진 ‘눌은 둑’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시니’와 ‘아적물이 미러 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라’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23.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촌기』의 작가는 벗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벗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며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벗이 ‘강태공’과 ‘엄자릉’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군.

25. ①과 ②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는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②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 ② ①는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②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어 ‘강호’에 은거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 ③ ①는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②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 ④ ①는 ‘내’가 ‘강호’에서 늙어 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을, ②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 ⑤ ①는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②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 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⑦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⑧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⑨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의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27. ⑨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정기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②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 ③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28.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⑨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신문

○○○○년 ○○월 ○○일

최근에 줄기 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 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⑩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물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게 내려꽂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훤히 빼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 이런 민한 종간나래! 얌생이처럼 기러케 쓸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뾰로통 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짹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

— 널큼 털어 넣지 못하겠니, 으잉?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밀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며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출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중략)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 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떼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혹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혹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궁둥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빡의 눈깔 사탕만 한 혹을 어루만지며 듣던 ㉠ 혹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굽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혹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터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혹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짝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고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넋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아! 아버지…….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혹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혹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 ② 아버지는 소주 두 병을 덜 받아 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 ③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혹부리 영감과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 ④ 혹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주었다.
- ⑤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 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 노력했다.

31.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겠어.
- ②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줘어 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
- ③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 ④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후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 ⑤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후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3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 ①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 ②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③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④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후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 ⑤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 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도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 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흄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곤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훼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사례하여 왈,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사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 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첨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 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윤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잊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중략)

화설, 장 씨 ㉠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 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

[A] 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끓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혼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좋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생각이 이에 미치자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불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왈,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죄움을 원망하는가?”

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왈,

[B]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죄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흘로 늙는 것을 감상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택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어머님과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의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번번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부마가 바야흐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⑤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33.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3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35. ‘장 씨’를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는 공간이다.
- ②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은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 ①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군.
-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 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군.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⑤ 유세기가 평생 첨을 두지 않고 소 소저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군.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⑤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④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⑦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⑧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39.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4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항목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 보다 커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 한다면 바젤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42.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②: 8%가 넘도록
- ③ ③: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④: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⑤: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①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②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④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⑤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틀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⑥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쪽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①~④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 ① ①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혼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②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③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④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쪘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 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빠른 답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답	배 점									
1	④	2	13	②	2	25	①	2	37	③	2
2	②	3	14	④	2	26	②	3	38	④	2
3	②	2	15	⑤	3	27	④	2	39	⑤	2
4	⑤	2	16	⑤	2	28	③	2	40	②	2
5	②	2	17	③	2	29	①	2	41	①	3
6	④	2	18	③	3	30	③	3	42	④	2
7	②	2	19	②	2	31	②	2	43	⑤	2
8	③	2	20	④	2	32	①	2	44	①	3
9	⑤	2	21	⑤	2	33	④	3	45	④	2
10	③	3	22	⑤	3	34	⑤	2			
11	③	2	23	③	2	35	④	2			
12	①	2	24	⑤	2	36	③	2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답	배 점									
1	③	2	13	②	3	25	②	3	37	④	3
2	⑤	3	14	②	2	26	④	2	38	⑤	2
3	①	2	15	①	2	27	⑤	2	39	⑤	2
4	④	2	16	⑤	2	28	⑤	2	40	③	2
5	④	2	17	④	2	29	②	2	41	③	3
6	②	2	18	②	2	30	③	3	42	②	2
7	④	2	19	③	2	31	①	2	43	⑤	2
8	④	2	20	⑤	3	32	①	2	44	③	3
9	④	3	21	④	2	33	⑤	2	45	①	2
10	③	2	22	③	2	34	④	3			
11	①	2	23	①	2	35	②	2			
12	①	2	24	⑤	2	36	③	2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흘수) 형

문항 번호	정답	배 점									
1	④	2	13	④	2	25	①	2	37	①	2
2	③	3	14	③	2	26	⑤	2	38	③	2
3	①	2	15	①	2	27	①	2	39	④	2
4	⑤	2	16	②	2	28	③	3	40	⑤	3
5	②	2	17	②	2	29	①	2	41	⑤	2
6	②	2	18	④	2	30	①	2	42	③	2
7	④	2	19	⑤	3	31	⑤	2	43	④	2
8	③	2	20	②	2	32	⑤	3	44	②	2
9	④	3	21	②	2	33	③	2	45	④	3
10	①	2	22	⑤	3	34	④	2			
11	⑤	2	23	①	2	35	③	2			
12	②	3	24	③	2	36	③	3			

JUST.

2025 장의순 수능국어연구소 콘텐츠